

화협 동정

● 음향 및 건재환경 시험동 신축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11월 9일 정왕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방재시험연구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향 및 건재환경 시험동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축된 음향 및 건재환경 시험동은 첨단 계측장비를 갖춘 국내 최고, 최신의 음향시험 시설로서 벽체 및 바닥용 건축구조부재의 차음 성능 및 재료의 흡음을 측정하게 된다.

● 특수건물 방화관리자 초청 간담회 실시

협회는 지난 12월 13일(화) 특수건물에 종사하고 있는 방화관리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협회 및 방재시험연구소의 현황, VTR 시청각 교육을 통한 최근의 방재기술 소개, 시험연구소의 시설 견학, 방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었다.

● 위험관리정보 DB구축

협회는 지난 12월부터 위험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1단계 작업을 완료하고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대내외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해 온 2만3천1백건의 자료를 언어별·자료별·분야별로 구축하고 화재 1만5백68건, 안전일반 3천2백21건, 폭발 1천4백69건, 환경 1천2백87건, 공학일반 1천6백37

건, 보험 3천8백75건, 기타 1천43건을 분야별로 구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방재시험연구소-미FMRC와 상호기술협정 체결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10월 29일 소방설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인증기관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와 상호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협정의 주요 내용은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기술연구 협력 등으로 앞으로 양기관은 시험결과와 상호 인정 등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진단 강화

협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9일간)를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대도시에 소재한 특수건물 1만9천7백57건 중 대형건물 2천6백건을 집중관리했다.

● 방재기술 자문위원 위촉

협회는 지난 11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방재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계 교수 5인을 자문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 서치호 교수(건국대) △ 고재욱 교수(광운대) △ 정재희 교수(산업대) △ 정석호 교수(서울대) △ 박진우 교수(서울대) 등이다.

보험계 동정

● 손보업계 위험관리 서비스 강화

손해보험업계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위험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에서는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시설물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기업 환경보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삼성화재는 석유화학공정의 안전 프로그램이 법제화되는 데 착안, 국내 석유화학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럭키화재는 가계성 보험계약자에게 주택 및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자동차 보험 등에 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11일 현대해상에서는 수원 사옥에서 '공장의 위험관리 방안'을 주제로 위험관리 세미나와 함께 국내외 대형 이재 및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를 가졌으며, 11월 18일에는 럭키화재가 청주관광호텔에서 청주지역의 안전담당자 및 보험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9~30일에는 삼성본관에서 삼성화재의 주관으로 '석유화학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삼성사 임원 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지난 12월 3일 대표이사 부사장에 이학수 제일제당 대표이사 부사장을, 전문이사에 배정중 삼성생명 전무를 전보 발령한데 이어 조용철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재무부 약관 개정

내년부터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착오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기간이 현재의 최장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손보사가 보험가입자의 계약철회때 지급해 주는 보험료나 분할 지급하는 보험금은 그동안 정기에금 이자(연 8.5%)를 가산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보험내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삼성사 컴퓨터위험진단 서비스 무료 제공

삼성화재는 최근 주택, 백화점, 여관,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이나 공장등에 잠재되어 있는 화재, 폭발, 산업재해, 배상 책임 등 각종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대처 방안을 수립해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컴퓨터위험진단서비스를 국내최초로 개발, 12월 1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럭키사, 천진에 주재사무소 설치

럭키화재해상보험(주)는 국내사 최초로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천진(天津)주재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인가를 획득했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 전용공단의 조성으로 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계 동정

●서울 관악소방서 개서

지난 11월 24일자로 서울관악소방서가 개서되었다.

관악소방서는 관악구 봉천4동 1593-3번지에 위치하며 대지 1,445평에 연건평 970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본관건물과 차고 1동을 총공사비 120억 7천 7백만 원을 들여 9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되었다.

●제4회 소방활동 사진전

제4회 서울 소방활동 사진전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시청앞 을지로 지하보도 전시관에서 열렸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화재 다발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 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화재 현장과 응급환자 발생시 이용하는 119 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전시회를 가졌다.

●'94의용소방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지난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지역 및 직장에서 화재예방 등 소방활동에 헌신·봉사한 모범의용소방대원 15명과 방화관리자 15명을 선발, 시상식을 가졌다. 본 의용소방대상 시상식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최하고 내무부가 후원하며 이번이 2회 시상식이다.

●'94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내무부가 주최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가 후원한 '94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지난 10월 26일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내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시도 간부와 의소대연합회 회장단, 협찬기관과 유관기관장, 기타 선수 및 임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종합시범훈련과 시도별 단체경기, 개인별 인명구조 훈련 종목울 선정하여 경영하는 행사로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다.

●한국화재·소방안전학회

4/4분기 심포지엄

한국화재·소방학회는 지난해 12월 9일 화보협회 1층 강당에서 '방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성사 오회순 부장의 대기업 방화관리 시스템, 웨스틴 조선호텔 장혁 부장의 호텔의 ISRS 목적 및 진행방법, 현대해상 이장환 부장의 손해보험과 방화관리, 일본 요코하마 대학 이상곤씨의 반도체 가스의 방화관리가 발표됐다. (☉)

위험관리 정보회원에게 가입하시면 화재·폭발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대표 780-8111

직통 783-4403